진실이 오른다 -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43호 1판 (음력 4월 23일)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조선대 장미정원 '찬란한 슬픔의 봄'

초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보슬비가 내린 20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내 장미정원을 우산을 쓴 여대생들이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앵그리 맘' 票출…지방선거 승패 가른다

〈세월호 참사에 성난 엄마〉

첫 실시 사전투표율·확 늘어난 40～50대 표심 향방 '3대 변수'로

선택 6·4 지방선거 D-14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22일)을 앞두고 사전투표제에 따른 투표율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성난 엄마(앵그리 맘)'들의 표심, 그리고 급증한 40대 중장년층의 표심이 6·4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3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전남지사 선거와 달리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따른 중량감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투표율과 40대 중장년층 표심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투표제 및 투표율**=광주지역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64.8%를 기록한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50% 미만의 저조한 성적을 보여왔다.

2회 지방선거는 45.1%, 3회 42.4%, 4회 46.3%, 5회 49.8%였다. 모두 전국 평균 투표율에 못 미쳤다.

이는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줄곧 민주당이 독점해온 탓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광주가 텃밭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지역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무소속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고, 전남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면서 당원들의 반발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표층의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새정치연합과 무소속 후보들 간 접전이 예상되는 격전지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도입되는 사전 투표제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결과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앵그리 맘' 표심 향배**='세월호 심판론'이 주요 쟁점이 될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월호' 희생 학생들 또래의 자녀들이 있는 40대 여성들의 표심도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이들 '앵그리 맘(Angry Mom·성난 엄마들)'의 투표율에 관심을 쏟고 있다. '앵그리 맘'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투표장으로 몰려 나올지, 아니면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장을 외면할지 여부에 따라 여야의 최종 성적표는 달라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의 40대 여성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1.45%인 13만339명을 차지해 이들의 투표율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새정치연합 소속 후보들은 '세월호 심판'을 앞세워 '힘있는 야당'을 위한 지지를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급증한 40대 이상 표심 관건**=이번 지방선거 유권자 수는 전국적으로 4130여만 명이다. 이 중 40대 비율이 21.7%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가 19.7%다.

따라서 전체 유권자 중 40·50대(41.4%) 표심과 투표율이 이번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와 전남도 40·50대의 표심과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도 전체 유권자 중 40대 유권자의 비율이 22.78%로 가장 많았고, 전남지역은 19.28%나 차지했다. 전남의 유권자는 50대(19.45%)가 가장 많았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총리 탄생할까

박대통령 오늘 귀국…총리 인선에 속도
한광옥·전윤철·강봉균 등 '화합형' 물망

박근혜 대통령이세월호 참사 수습의 후속조치로 총리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1일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후임 총리인선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사표를 제출한 지 이미 3주가 지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후임 총리 인선을 이미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총리인선에 소요되는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 주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임 총리후보와 관련해 하마평이 무성하다.

현재 총리 후보로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김무성 의원, 김성호 전 국정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들어 호남이나 야권 출신의 '화합형 총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호남 출신이 대거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위원장 외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전윤철 전 감사원장·강봉균 전 의원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광주시교육감 ▶4면
순천시장 ▶11면
장흥군수·강진군수 ▶12면

불안한 호남고속철

노령터널 안전율 0.13
붕괴 방지시설 9.5→3.5㎝

장성 노령터널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에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철도 시설안전 및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철도 '노령터널'(연장 240m·공사비 43억7000만원)과 정읍시 입암면 '모암터널'(연장 105m·공사비 19억5000만원)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안전율이 기준치인 1보다 훨씬 낮은 0.13～0.64로 파악됐다.

이 구간 공사를 한 업체는 수도권고속철도 제8공구 건설공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터널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라이닝(터널 허물어짐 방지 구조체) 두께를 애초 9.5㎝에서 3.5㎝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치가 1미만이라는 것은 해당 구간의 구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당 터널 천정에 쌓은 흙의 높이를 낮추는 등 터널 구조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제1-1공구)에 관련된 84건의 공사(도급공사비 합계 13조원)를 추진하면서 50건에 대해 공사시간을 연장하면서 업체들에게 공사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탑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7명 사망 287명
※ 세월호 참사 35일째
20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7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